



# 신재민의 수학공간 수학 영역

1

6월 모평 끝난 후  
수준별 공부방법

자, 여러분 위로는 잘 받으셨나요?

내 맘이 얼마나 전달 됐을지 모르겠네요.

마음은 좀 괜찮아졌구요?

이제는 지금의 상황에 슬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,

이 시험을 통해서 고쳐야 할 점들을 체크하고 본인의 공부계획에 추가하여

9월까지 미친 듯이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.

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서 공부하기가 더 힘들거란 말이죠.

그래서, 생각보다 6월 이 후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많아요.

이번에 시험 잘 봤다고 확 풀어서 설렁설렁 공부하는 친구도 많고,  
시험 못봤다고 계속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놀거나,  
어떻게 공부해야할 지를 몰라서 허우적 거리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요.

**기회입니다.**

**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진짜 기회라구요.**

역전 해볼만 한 시간도 있고, 환경도 만들어졌는데  
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대충대충 할거예요?

5개월 넘게 남은 시간, 이 악물고 귀닫고 입닫고

‘온 신경을 공부에만 집중..’

이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?

분명히 눈에 보인다니까  
실력, 성적 둘 다 오르게 되는 본인의 모습이 보일거 라니까.

이 시간부터 밑으로 깔리는 사람,  
치고 올라갈 사람 극명하게 나뉘어요..

열심히 공부하면  
본인이, 치고 올라가는 그 몇 안 되는 사람 되는거야.

자, 그럼 지금 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얘기해봅시다.

본인들의 수준에 맞게 알려드릴건데,

참고해야 할 것이, 제가 지금 얘기드릴 것은  
각 수준별로 대략적인 공부 방향에 대한 것이니  
본인의 상황과 안 맞다고 기분나빠하지 마시구요.

**본인에 맞는 맞춤 방향을 잡고 싶다면 블로그에 댓글 고고**

다 도와드릴테니 걱정 하지마세요

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카톡으로 연락하셔도 돼요.

주저말고

수준별로 얘기해드리기 전에 몇 개만 짚고 넘어가죠

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고, 불안한 건 알겠지만  
그렇다고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향들 다 **엎어버리고**  
인강사이트에 휘둘리면서 ‘ 뭐 들어야하지 뭐가 좋을까’ 하면서  
마우스 휠만 돌리고 **있으면 안돼요.**

진짜 잘못된 공부방향이 아니면, 아직 들인 노력에 비해 시간이 부족해서  
성적이 안 올랐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대로 유지하면서

**6월 모평을 분석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서  
공부하시면 되는거예요.**

마치 ‘이 강의 들어야 성적 오른다’ 는 식의 광고에  
정신이 팔려있으면 안됩니다.

하나 더, 6월 모평을 분석하면서  
본인의 충분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, 난이도가 평소보다 쉽게 나왔거나 우연히  
문제를 맞춘 경우에도 그 단원을 꼼꼼히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.

보통 방심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, 본인이 틀린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.

이러다가, 수능 때 뒤통수 맞으면 누구 탓도 못해요

자 그럼, 수준별로 나눠서 얘기해보죠.

## 중 하위권 학생

- 65점 이하 학생들
- 좀 난이도 있는 4점문제를 풀기전에 쪼는 학생들
- 실수해서 틀린 것 보다 실력으로 못 푼 문제가 더 많은 학생

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.

클릭 → <http://blog.naver.com/tlswoals1004>



제가 문제를 풀기위해서 갖춰야할 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

**바로 온전한 개념학습 +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고 내가 알고있는 개념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사고방식** 이에요.

이 관점에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써보겠습니다.

중 하위권 여러분들은,  
온전한 개념학습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, 문제! 문제! 하는 경향이 있어요.

**문제를 풀면서 꼭 개념학습도 병행** 해주세요.

‘저 개념 다 공부했다구요. 어떤걸 하라는 거예요?’

지금까지, 단순 문제를 풀기위해 개념서에 정리되어있는 내용만 가볍게 읽고  
예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혀가는 학습을 해왔다면,

시간을 조금 내서 꼭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.

어떻게 하나구요?

예를들어, 함수의 극한에서  $\frac{\infty}{\infty}$  꼴이 나오면 ‘오오 최고차항 계수비! 너무쉬워~’  
이러지 마시고, 왜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야 하는지,  
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학습해보라 라는 거예요!

$f(x)g(x)' = f'(x)g(x) + f(x)g'(x)$ 을 알고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 
 $f(x)g(x)$ 를 미분하면 왜  $f'(x)g(x) + f(x)g'(x)$  이렇게 되는 건지 **증명도** 본  
인이 직접해보면서, 증명과정에서 쓰이는 **아이디어들도 공부**하라는 얘기에요!

증명과정에 쓰이는 아이디어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!

어떤 방식으로 다시 개념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되세요?

이 것은, 제가 강조하는 **생각하는 공부의 시작**입니다.

‘문제는요? 신SUN님 문제는요?’

문제 풀때에도 , 꼭 풀기 전에 문제의 조건들을 읽고  
**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**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.

여러분은, 잘 안되면 답지 보세요.

아직 알고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 
너무 오래 고민하는 건 지금은 별 도움이 안돼요.

중요한 것은 답지를 볼 때,  
**아 이거였구나 이해됐다~** 하고 다시 풀어보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

**진짜 안돼요. 리얼 절대로**

문제 안에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, 그 해석의 근거는 무엇인지  
그리고 이 조건들을 어떻게 추론해서 무슨 개념을 활용했는지

그 과정들을 **빠짐없이 보고 정리**해야 합니다.

이 것 또한, 제가 강조하는 **생각하면서 문제풀기** 의 시작입니다.

답지를 보고 내가 혼자 다시 풀어 볼 때,

‘아 이 조건을 해석하면 이거고 저 조건은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이걸 써먹어야  
해! 그러므로 이 식을 도출해낼 수 있지.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이거니까 답은  
이거!’

이런 식으로, 문제 푸는 과정 안에서 해야 할 생각들을  
꼭 답지에서 배워가세요

어떻게 해야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, 블로그에서

**중위권 문제풀이법** 읽어보세요!

그럼 다음으로,

### 중위권 학생

- 70~80점대 학생들
- 4점문제 고정적으로 4~5개 이상 틀리는 학생
- 킬러문제는 안푼다 고 생각하는 학생

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,

여러분들도 온전히 개념공부도 시간내서 하셔야 해요.  
(하루에 조금씩 이라도)

여러분들은, 교과서도 좋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있고 더 많은 생각을 할  
수 있는 책을 사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예를들어, 수학의 X작, 한완X 등 내용이 ‘교과서 개념+  $\alpha$ ’ 로 되어있는 책들.

**생각하는 연습**을 하기에 좋더라고요.



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

여러분들은 문제를 그냥 풀면 안되고  
제가 이 전에 칼럼에서 쓴 것과 같이

**문제를 풀기전 30초정도 문제의 조건과 구해야 할 것을 보면서,  
무슨 개념을써먹을지 스스로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세요.**

그리고 **본격적으로** 문제를 풀 때, 꼭 **문제와 얘기하듯이**  
'응 이조건~ 이건 이렇게 해석되지 그럼 이 개념 써먹어야겠네?  
그럼 이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아 저기 나와있네 아 그렇지~ '

**이런식으로, 조건들을 보고 교과서를 통해 공부한 내용에 맞춰 해석하고,  
하나 하나 따지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개념을 활용할지 추론하면서 풀어야 해요**

그래야 추 후에 풀 고난이도 문제, 킬러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

**사고력**이 생기는 겁니다

사고력.

이 놈 갖고싶으시죠? 생각하면서 푸셔야 해요 **생각.**

정확히 뭔지 느낌이 안온다면 **중위권 문제풀이법** 칼럼 참고하세요.

예를 들어 자세하게 써놨습니다.

자 그럼 마지막으로

## 상위권 학생

-85점 이상 학생들

-틀리는 문제가 정해져있는 학생들( 21, 29 , 30)

-killer문제에게 매번 킬을 내주는 학생들

**우리, 더 이상 킬러문제에게 킬 내주지 맙시다.**

자,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봅시다.

여러분이 기출문제 3점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,

4점 문제를 갖 풀기 시작할 때,

'속속 오 그래그래 아주 잘 풀리는 구만' 이러셨나요?

공공 고민하다가 답지 보고 '아! 이 아이디어가 들어 가는구나. 정리해야지!'

라고 하면서, 나중에 다시 풀고 틀리고, 정리하고 다시 풀고

이리저리 반복하며 우걱우걱 기출 2회 정도 열심히 돌려보면서  
익숙해지고 풀만해진 거 아닌가요?

킬러문제들도 완벽하게 마찬가지로

다만,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.

자, Killer 문제를 풀어내려면요.

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해요.

여러분도 마찬가지로

**위에서 얘기했듯이.**

그냥 문제 보자마자, 무턱대고 손으로 써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마시고,  
**차분히 30초정도 조건들 읽어가며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하시고,**  
마치 **문제와 얘기하듯 풀면서, 조건들을 보고 교과서를 통해 공부한 내용에 맞춰**  
해석하고, **하나 하나 따지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개념을 활용할지 추론하면서 풀**  
야 해요.

거기애다가 **처음보는 문제들로 연습하면서 사고력을 높여나가야** 해요

**처음보는 문제 + 많은 양 + 끊임없는 생각과 추론하는 연습**

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는,

제가 킬러문제 학습편을 이번 주말에 올릴 예정이니

그 칼럼 확인하면 아마 이해 100% 될듯요!!

아, 그리고

본인에게 맞는 문제집이 뭔지 모르겠다면 댓글남기시면 추천해드릴게요.

오키?

Q. 아 신SUN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좀 케이스가 특이해서..

- 눈치 보지말고 바로 댓글 GOGO

우리, 이왕 열심히 공부하자고 마음먹은거

진짜 개 열심히 해봅시다.

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

# 4



## 수학 영역

수능 끝나고, 아 진짜 존내 열심히 했다. 후회없다  
할 수 있을정도로

자신있죠?

오늘부터 시작입니다.